

보도시점 2024. 4. 3.(수) 12:50
< 4.4.(목) 조간 >

배포 2024. 4. 3.(수)

외투기업, 주한외국상과의 사찰에서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 도약 논의

- 제2차 산업투자전략회의 일환으로 외국인투자 전략회의
- 전통사찰 문화체험과 함께 외투기업 만족서비스 의지 강조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4월 3일(수) 진관사(서울 은평구 소재)에서 주한외국상의, 외국인투자기업 관계자와 함께 외국인투자전략회의를 개최하였다. 지난 2월 14일(수) 외국인투자기업 오찬간담회에서 만난 이후 올해 두 번째 만남이며, 제2차 산업투자 전략회의 일환으로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지난 2월의 오찬간담회 당시 주한독일상의 마틴 행켈만(Martin Henkelmann) 회장이 추천한 한국의 전통사찰 문화체험을 공유하고자, 진관사를 함께 방문하여 사찰음식 체험과 수록재 일부 시연을 관람하였다.

안덕근 장관은 “이번 정부 출범 이후 매년 역대 최대 외국인투자 유치 성과 뿐만 아니라, 올해 1분기까지 매분기 기준 역대 최대 성과를 경신하고 있어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며, “올해 외국인투자 유치 350억 불을 목표로 주한외국상의, 외투기업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국이 더욱 매력적인 투자처로서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❶ 공급망 회복력과 첨단기술 경쟁력을 갖춘 산업 생태계를 위한 글로벌 기업 투자유치, ❷ 글로벌 스탠더드에 걸맞은 규제개혁, ❸ 기업친화적 및 고객감동형 지원체계 구축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주한외국상의와 외투기업 관계자는 전통사찰 문화체험 기회 제공 등 외국인투자자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감동을 주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에 사의를 표하며, 투자에 대한 세제·재정지원 등 인센티브 확대, 전력 등 인프라 확충, 인증·검사제도 합리화 등을 건의하였다.

산업부는 외투기업의 현장애로뿐만 아니라 최근 주한미국상의(AMCHAM)에서 제안한 글로벌 아태지역본부 유치전략도 적극 고려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투자정책관 투자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민영 (044-203-4070)
		담당자	서기관	박수정 (044-203-4071)
		담당자	사무관	이상현 (044-203-4073)

□ 개최 배경

- 외투기업 오찬간담회(2.14)에 이어 외국인투자 촉진 방안 논의 및 외투기업의 현장 애로수렴
- 한국 전통사찰·음식문화 체험 등 “Get to Know Korea” 기회 제공

□ 회의 개요

- (일시·장소) '24.4.3(수) 11:00 ~ 14:00(오찬포함) / 진관사(서울 은평구)
- (참석자) 산업부 장관, 외투기업 대표, 주한외국상의 회장 등 20여명
 - (외투기업)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 외투기업 대표
 - * 도레이첨단소재, 듀폰코리아, 르노코리아, 보잉코리아, 약사손해보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코리아, 에스오일, 에어프로덕츠코리아, 한국바스프, 한국유미코아
 - (주한상의) 미국, 유럽(ECCK, 獨, 佛, 英), 일본, 중국 상의 대표
 - (유관기관) KOTRA 김성진 외국인투자옴부즈만, 김태형 IK 대표 등

□ 세부 일정(안)

【 제1부 : 전통사찰 문화체험 】 * 한영 순차통역

시 간	세부내용	장 소	비 고
11:00-11:40(40')	진관사 안내 및 차담	진관사 경내	진관사
11:40-11:50(10')	이 동		
11:50-12:30(40')	오 찬 (사찰음식)	한문화체험관 (2층 빛다움홀)	
12:30-12:40(10')	휴식 및 이동		

【 제2부 : 외국인투자 전략회의 】 * 한영 동시통역

12:40-12:50(10')	수룩재 공연	한문화체험관 (B1층 흙다움홀)	진관사
12:50-12:55(05')	모두발언		산업부
12:55-13:57(62')	건의사항 수렴 및 자유토론		참석자
13:57-14:00(03')	마무리발언		산업부